

[전체공지]

교황님 기도 지향

<복음화 지향> 젊은이들,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

- ※ 10 차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
 - 일시: 1 월 27 일 오후 4 시 부터 1 월 30 일 오후 3 시까지
 - 장소: 애틀랜타 이냐시오 피정의 집
 - 지도: 김영수 스테파노, 이상현 베드로신부 및 봉사자
 - 참가비: \$400 (기도회 통해 마감전 등록시 \$330)
 - 신청마감: 1 월 15 일 (선착순 40 명)

※ 성모회 피정이 2 월 10 일날 오후 1 시에 바오로 딸 수녀회 소속 데레시아 수녀님의 지도로 있겠습니다.

[잭슨빌]

- 오늘 친교 후 성탄트리 및 장식 제거 작업이 있겠습니다.
- 다음 주일 미사 후에 사목회의 있습니다.
-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렉시 베로니카, 함두순 베로니카 (1 월 13 일), 김홍배 안토니오, 어인수 안토니오 (1 월 17 일), 김현희 아네스, 백경윤 아네스, 조의단 아네스 (1 월 21 일) 축하드립니다.

[게인즈빌]

- 1 월 둘째, 넷째 주 금요일 (1 월 11 일, 25 일) 평일미사 있습니다. (오후 7 시부터 Q&A, 7 시 30 분에 미사 시작합니다.)
- 2019 년 교무금 책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다음 주일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사목회의 있습니다.

<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>

공동체	주일봉헌금	교 무 금	건축헌금	기 타	총 계
게인즈빌	\$287	\$900	-	-	\$1,187
잭슨빌	\$773	\$1,220	-	\$40	\$2,033



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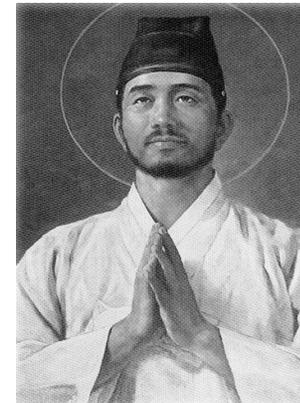
St.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

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(904) 525-4809

성당 (904) 573-1833

잭슨빌 성당 St.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, 8051 Rampart Rd. Jacksonville, FL 32244

게인즈빌공동체 St. Patrick Parish, 550 NE 16th Ave. Gainesville, FL 32601



聖 최경환(崔京煥) 프란치스코(1805-1839)

잭슨빌 한인 성당		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	
주일 미사	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	특전 미사	토요일 오후 7 시
평일 미사	매주 수요일 오후 8 시,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	평일 미사	둘째, 넷째 금요일 오후 7 시 30 분 성가대 연습실
성령 기도	매주 금요일 오후 8 시	성령 기도	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
성프란치스코 기도회	매주 (목) 오전 11 시	레지오	-
성시간	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	주일학교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예비자 교리	매주 주일 미사 후	예비자 교리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사목회의	첫째 주 주일미사 후	사목회의	첫째 주 특전 미사 후
사목회장	송재민 하상바로로 (904) 226-7191	사목회장	천창준 레오 (860) 906-6567

www.stfccm.org

<https://www.facebook.com/St.FrancisChoe>

오늘의 묵상

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. '주님 공현'은 "주님께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신다."라는 뜻입니다.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"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."라고 말하듯,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

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. 원하면 모든 이가 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뵈게 됩니다. 오늘 제 1 독서에서는 주님께서 '빛'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고,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멀리서 낙타를 몰고 금과 유황을 선물로 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내시어, 누구든 '원하기만 하면'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

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도 목자 몇 명과 동방 박사들,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예언자 시메온과 안나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 뵈을 수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그들만이 그분을 뵈기를 '원했기' 때문입니다.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
헤로데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. 세상 것을 좋아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. 아니,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. 땅이 좋은데 왜 하늘을 올려다보겠습니까? 우리는 땅의 것보다 늘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합니다.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오직 메시아만을 보려고, 가족들을 버려두고 돈과 시간을 들여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. 세상 것을 좋아하면 천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. 좋아하는 것이 보이면, 보이는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. (전삼용 요셉 신부)

< 8. 찬미하여라 >

Bless the Lord, my soul, and bless God's ho - ly name.
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-

Bless the Lord, my soul, who leads me in - to life.
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

주님 공현 대축일

[제 1 독서] 이사야서 60.1-6
<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.>

[화답송] 시편 72(71),1-2.7-8.10-11.12-13(©11 참조)

◎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.

[제 2 독서]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.2.3 L. 5-6
<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.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.>

[복음환호송]

- ◎알렐루야
-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.
- ◎알렐루야.

[복음] 마태오 2.1-12
<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.>

<전례 봉사자>

공동체		해 설	제 1 독서	제 2 독서	봉 헌
이 번 주	게인즈빌 (1/5)	최건화 안젤라	이호석 레오폴드	임윤미 플로라	
	잭슨빌 (1/6)	이교순 카타리나	렉시 베로니카	최차숙 마리아	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
다 음 주	게인즈빌 (1/12)	신미영 미카엘라	천창준 레오	천하일 미카엘	
	잭슨빌 (1/13)	한상신 디나	김현희 아네스	송재민 하상 바오로	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

<미사 성가>

공동체	입 당	봉 헌	성 체	파 건
게인즈빌	87	190	111	606
잭슨빌	487	217	154	100